

## ■ 특특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품질 1위

삼성전자서비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20일 발표한 “2022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에서 전자제품 AS 전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KSQI(Korea Service Quality Index)는 34개 산업, 134개 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제감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제도다. 전문평가단이 소비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평가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 정책, 엔지니어의 전문성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전 AS 12년 연속, 휴대전화 AS 11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업계 최대 178개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며, 오지 등 센터 방문이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스마트폰 이동 서비스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 ■ 그래픽 경제



지난해 재산증여 ‘역대 최대’

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가 16만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가족 증여는 5년 전의 2.5배로 급증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직계존비속 간 재산증여건수는 15만5,638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 “오늘 10원도 안썼다”... ‘무지출 챌린지’ 열풍

MZ세대 중심 SNS 인증샷 인기

도시락·홈트 등 노하우 공유도

고물가 여파 ‘짠테크’ 지속 전망

서구 쌍촌동에 사는 직장인 이 모씨(26)는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은 하루에 10원도 사용하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식사는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장을 본 뒤 유튜브 동영상상 참고해 만든 반찬·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식사 후 커피는 카페가 아닌 사내 탕비실믹스커피를 이용한다.

퇴근 후는 물론 주말에도 개인적인 약속은 거의 잡지 않으며 최근에는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반가에 한 번씩 명품을 구입하곤 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비도 부족하다”며 “통신비나 전기세 등을 줄일 수 없으니 식비나 지인과 약속을 줄이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짠테크’를 실천중인 직장인 박 모씨(32)도 마찬가지. 휘발유값이 1,800원대가 넘어서면 서 그는 출·퇴근 등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취미로 다니던 복싱장, 스크린골프장은 이달



고물가와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MZ세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무지출 챌린지’ 인증이 유행하고 있다.

등록 연장을 포기하고 홈트레이닝으로 대체했다. 안 쓰는 물건과 선물 받은 기프트콘은 중고로 판매해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김 씨는 “주식장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여섯 달 월급만큼 손실을 입었다”면서 “결혼자금을 모아야 하기에 최대한 생활비를 아끼고 있고, 쓰더라도 만 원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고물가와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MZ세대 직장인’ 사이에서 지출을 극단으로 줄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밥상, 교통, 전기 등 생활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고정 지출까지 줄여 재정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무지출 챌린지’는 애초에 소비를 멈춘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절약’과 차



이 있다.

한때 이들을 중심으로 ‘올로(yolo)’와 ‘플렉스(flex)’라는 단어가 생기며 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게 유행이었던 것과 달리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다.

‘무지출 챌린지’는 SNS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며칠 ‘무지출’에 성공했는지 인증하는 것까지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들은 각자 매주 소비 내용과 무지출중인 일상생활을 공개하고 서로 댓글을 달아 응원해주는 등 협력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제 막 챌린지를 시작한 이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한다.

계속되는 자산가치 하락에 투자가 아닌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해주고, 가계부 작성 방



/인스타그램 캡처

법 등을 알려주는 등 효과적인 저축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런 ‘짠테크’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지출 축소가 장기화할 경우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대 경제학과 김일태 교수는 “행동력이 빠른 MZ세대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건 현재 경제가 좋지 않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젊은세대가 비교적 소득이 적어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소비 감소가 장기화된다면 경기가 수축할 수 있으니 정부차원에서 물가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NH농협은행 ‘연도맵시스타’ 시상식

고객서비스 친절 직원 13명 선정

NH농협은행 전남본부와 광주본부가 20일 농협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2021 연도맵시스타’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이수경 부행장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고객응대, 마케팅 능력 등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전남 9명, 광주 4명의 연도맵시스타에게 시상했으며, 안종팔 농협전남노조위원장과 한

제규 농협 광주노조위원장이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농협은행 ‘연도맵시스타’는 친절한 고객응대와 적극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최고의 고객응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전남·광주본부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맵시스타를 매년 배출하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은행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수경 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착과 함께 고객중심 서비스마인드의 중요성은 점



NH농협은행 전남본부와 광주본부가 20일 ‘2021 연도맵시스타’ 시상식을 개최했다.

/NH농협은행전남본부 제공

차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금융 소비자보호와 고객 권익 신장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성진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ONE store